

도식의 사용이 수행평가에 미치는 영향 : 성 도식과 권위주의를 중심으로

최현주 · 정진경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성도식의 사용과 권위주의적 사고에 따른 편견이 수행평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 문화에서 경험적으로 재검증해 보고자 실시한 것이다. 평가대상자(글의 저자)의 성별에 따라 전반적인 수행평가가 달라지는지를 검증하고 동시에 평가자의 도식 사용 유형이 수행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는데, 도식적 사고를 하는 유형과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성역할 검사(KSRI)'와 '권위주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논술문과 수필형식의 글을 남녀저자의 이름으로 제시하고, 글의 우수성에 대한 전반적 평가, 권위주의적 사고, 성역할 특성 등을 포함한 설문지를 남녀 대학생 147명에게 실시하였다. 응답자들이 글의 저자의 성별에 따라 전반적인 평가를 다르게 하였는지를 검증한 결과, 기존의 대부분의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응답자들이 도식 사용 유형에 따라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남성적 특성이 강한 수필에 대한 평가에서 저자의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성도식 사용 유형이 양성적인 사람들은 남녀 저자의 글에 대한 평가에 차이가 없었던 반면, 남성적인 유형의 사람들은 글의 저자가 남자였을 때 그 글이 매우 잘 쓴 글이라고 평가하여 성별에 따라 큰 차별성을 보였다. 권위주의적 사고 정도에 따라 남녀의 수행에 대한 평가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에서는 권위주의적 사고가 심한 유형이 저자의 성별에 따라 글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에 더 큰 차이를 두었고, 글의 저자가 남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 더 잘 쓴 글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본 연구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요하는 사회적 판단이나 평가에 집단 차별적인 도식의 사용은 평가 자체의 공정성을 잃게 할 수 있는 요인이 되므로 이러한 현상의 이해에는 성도식이나 권위주의적 사고와 같은 도식 사용 유형에서의 개인차 변인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하였다.

사회적 편견이나 고정관념은 과제수행 결과의 평가를 객관적이지 못하게 한다. 이것은 사람들이 과제수행 결과 자체보다도 평가대상자의 특성을 보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동일한 수행 결과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인간의 행동이나 관계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사회심리학적 구성개념의 하나가 고정관념이다. 그동안 고정관념이 무엇이며, 그것이 어떻게 형성되고 유

지 변화되는지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있어 왔다. 이 고정관념 연구에 방향을 제시해 온 이론적 조망들 중 정보처리 이론적 입장에서 고정관념을 바라본 것이 인지적 접근인데(Ashmore & Del Boca, 1981), 이 접근에서는 고정관념을 다른 신념과 마찬가지로 보고, 고정관념화가 정상적인 인지과정임을 가정하였다. 인지적 접근에 의한 고정관념 연구의 주요 개념 중 하나가 도식이다. 도식은 사람들에게 정보처

리상의 용이함이나 적절한 규범적인 기대들을 제공해주는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 바로 이러한 특징으로 인하여 많은 취약점을 안고 있다(Fiske & Taylor, 1991). 이 중 하나가 도식적 정보처리로 인하여 생기는 편견이다. 한 예로 성도식(gender schema)의 사용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결과는 주로 남성보다는 여성을 부정적이고 비호의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그들이 사회적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받는데 큰 방해요인이 되어 왔다. 1960년대에 Goldberg(1968)는 그의 연구에서 동일한 자료가 여성들이 해낸 일로 제시되었을 때 남성들이 해낸 일보다 열등하게 평가 받는다는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그의 고전적 연구 이후 성(性)에 대한 고정관념이 사회적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많은 연구들이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져 왔다. 이들이 제시한 연구 결과는 크게 둘로 나뉘는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일부 연구들에서는 Goldberg의 연구 결과가 보여 주었듯이 사람들이 사회적 판단을 할 때 여성을 더 부정적이고 비호의적으로 평가한다고 보고한 반면(Sagar & Schofield, 1980; Darley & Gross, 1983), 다른 연구들에서는 남녀에 따른 차이를 증명하지 못하였다(Locksley et al., 1980, 1982). 보다 최근의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동일한 자료를 평가했던 사람들이 같은 자료를 남자가 쓴 것인지 또는 여자가 쓴 것인지에 따라 다르게 평가를 했지만, 평가 차이의 크기가 과거의 연구들과 비교해 볼 때 매우 줄었다고 보고하였다(Swim, Borgida & Myers, 1989). 그간 많은 연구자들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여성이나 소수집단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과거에 비해 증가하였고 성고정관념에 의한 편견 또한 줄어들고 있는 사회의 변화에 부응하는 결과를 밝혀왔다(Banks, 1976; Ward, 1979; Hraba & Grant, 1980; Ward, 1981; Swim et al., 1989). 그러나 한편에서는 아직도 사람들이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을 확연히 표현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연구들을 계속 보고하고 있다(Lueptow, 1980; Deaux & Lewis, 1983; Martin, 1986).

이러한 상반되는 연구 결과에 대해 많은 연구자들은 이같은 결과가, 제시되는 정보의 애매함이나 여러

가지 상황적인 요인들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더 미묘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Fiske, 1989), 이러한 연구결과에 대해 어떤 성급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한다. 따라서 다른 성(性)에 대한 평가의 본질은 그리 단순한 문제가 아니며, 기존 연구들에서 남녀의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결과가 실제로 우리가 성 고정관념으로부터 벗어났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고정관념이 수행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 중에서 특히 평가자의 성도식의 사용에 따른 차이를 측정된 연구들을 보면, 양성적인 사람들이 여성적이거나 남성적인 유형의 사람들보다 고정관념에 치우치지 않은 공정한 평가를 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평가자의 도식 사용 유형에 따른 수행 평가의 차이를 밝히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자의 특성을 다룬 기존의 연구가 극소수라는 점에서 아직은 일반화에 무리가 있음을 연구자들은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성도식과 같은 도식 사용 유형에서의 개인차 변인들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의의 중 하나이다.

고정관념이 수행평가에 미치는 영향

고정관념이 수행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많은 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대상집단의 특성에 관한 연구들로 수행 결과물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었다. 1968년 Philip Goldberg는 일련의 실험을 통하여 과제 수행의 평가에 있어서 평가대상자의 성별에 따라 그 평가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아냈다. 이 연구에서 Goldberg는 여자 대학생들에게 여섯편의 학술논문을 읽게 하고 내용, 형식 등에 따라 그 우수성을 평가하도록 했다. 어떤 학생이 읽은 논문에는 남자가 쓴 것으로 서명되어 있었고(예: John T. Mckay), 또 다른 학생이 읽은 같은 논문에는 여자가 쓴 것으로 서명되어 있었다(예: Joan T. Mckay). 연구 결과, 여학생들은 제시된 논문을 '남자가 썼다'고 했을 때 '여자가 썼다'고 했을 때보다 훨씬 우수하게 평가했다. 다시 말하면, 여성들이 해낸 일이 남성들이 해낸 일보다 틀림없이 열등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

구를 통해 Goldberg는 여성들은 남성에 비하여 '지적(知的)으로 열등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도록 교육받아 왔다고 주장했다. Goldberg 연구 이후 이 분야의 연구가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져 왔는데 연구 결과들은 응답자들이 남녀를 다르게 평가한다는 예언을 거의 증명하지 못하였다. 이와 맥락을 같이한 보다 최근의 연구에서 Swim 등(1989)은 Goldberg의 고전적 연구 결과가 가지는 의심스러운 관점과 확실치 않은 결론의 타당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그가 사용한 다양한 패러다임 속에서 이를 규명해 보고자 하였다. 이들이 발견한 것은 동일한 자료를 평가했던 사람들이 남자가 쓴 것인지 또는 여자가 쓴 것인지에 따라 같은 자료를 다르게 평가했지만, 평가 대상자가 남자인지 여자인지에서 오는 응답자들의 평가 차이의 크기가 매우 작았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차이는 사회적 행동에서의 성차에 대한 전형적인 보고 보다도 더 작은 차이였으며, 단지 지금까지의 연구들에서 얻어진 유의한 것과 유의하지 않은 결과의 수를 검증해 보기만 하여도 대다수의 연구 결과들은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편 또 다른 연구들에서는 제시되는 정보가 적은 경우에 남성이 여성보다 더 호의적으로 평가 받을 뿐만 아니라 제시되는 자극정보가 이력서나 기타 다른 종류일 때 그 편향 효과가 더 커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아직도 사람들이 전통적인 성역할에 따라 성고정관념을 표현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연구들이 한편으로 계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볼 때 (Lueptow, 1980; Deaux & Lewis, 1983; Martin, 1986), 제시되는 정보와 자극재료 또는 여러가지 상황요인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편향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살펴본 Goldberg의 실험은 1960년대에 실시된 것이다. Swim 등의 연구를 비롯한 보다 최근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흑인이나 여성의 자아존중감이 상승 일로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Banks, 1976; Ward, 1979; Hraba & Grant, 1980; Ward, 1981; Swim et al., 1989). 이와 같은 진전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편견이 더이상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이 다른 성(性)이나 인종집단에 대한 평가나 반응의 본질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며, 도식이나 범주에 기초한 판단이나 감정은 확실적이고 즉각적일 수가 있으며, 그것은 특별한 상황, 특별한 외집단 구성원의 속성과 상호작용하면서 더 미묘해질 수 있는 것이다(Fiske, 1989).

도식 사용 유형

성 도식

어느 사회에서든지 각각의 성별이 지니는 일련의 특성에 대해서 그 사회 구성원들은 대체로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를 성역할 고정관념(sex-role stereotypes)이라고 부른다. 대체로 고정관념은 남녀간의 실질적인 차이를 과장하고 왜곡하는 경향이 있다(Basow, 1980). 성역할 고정관념이란 것은 남자가 상이한 특성(성격, 능력, 적성 등)을 지니고 있어 사회적으로 다른 역할을 맡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관념으로서, 사회적 관계의 모든 부문에서 남성과 여성의 관계를 규정하는데 사용되는 일종의 거대도식이다. 1970년대에 이르러, 남성성(masculinity)과 여성성(femininity)이라는 것이 실제로 남성과 여성이 뚜렷이 구분되게 지니고 있는 특징을 반영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사회적으로 형성된 고정관념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고(Kaplan & Sedney, 1980), Bem(1974)은 실제로 타고난 성별이 남성이든 여성이든간에 심리적으로는 남성적인 특성과 여성적인 특성을 공유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양성성(androgyny)의 개념을 제안하였다.

양성성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한 개인이 여성적 특징과 남성적 특징을 동시에 지니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성역할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는 건강하고 적응적인 성격 형태로서 개인이 상황에 따라 남성적이기도 하고 여성적이기도 한 성격을 말한다. 이를 기초로, Bem은 성역할 검사(BSRI)를 개발하였으며 이 검사는 사람들을 양성적, 남성적, 여성적, 미분화의 네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인지적 접근에 의한 정보처리과정에 대한 연구가 발전하면서, Bem(1981)은 초기 이론을 수정하여 개인

이 성역할 고정관념적인 사고를 얼마나 하는가가 성도식(gender schema)의 사용 정도에 따르는 것임을 밝혀내었다. 성도식이란, 사람들이 성(性)과 관련 없는 다양한 다른 차원들은 무시하고 특히 성(性)에 초점을 맞추어 정보처리를 하는 일종의 성유형화된 인지틀이다.

Bem의 성도식 이론에 근거한 주요 연구를 살펴 보면 성유형화된 사람은 자신과 관련되지 않은 정보도 성도식에 의해 부호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한 예로 Bem의 성역할 검사(BSRI)로 사람들을 네 유형으로 나눈 뒤 남성성으로 판단되는 단어(고릴라, 바지 등)와 여성성으로 판단되는 단어(나비, 비키니 등), 그리고 중성적인 단어(개미, 스위트 등)들로 구성된 61개의 단어를 보여준 후 단어를 회상하는 과제를 실시한 연구가 있다. 연구 결과 성유형화된 사람들은 양성적인 사람보다 성(gender)에 근거하여 단어를 회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즉 성유형화된 사람이 여성성 단어를 하나 회상하면 그 다음에 남성적이거나 중성적인 단어를 회상하기 보다는 다른 여성성 항목을 연이어 회상하였다. 반면, 양성적인 사람들은 단어들을 항목별로 함께 회상하긴 하였지만 성에 근거한 회상은 아니었다. 예를 들면 이들은 성(gender)에 근거하지 않고 같은 동물 이름들만을 함께 회상한다던가 또는 의류 품목들을 연이어 회상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하여 Bem은 양성성을 정보처리과정의 독특한 한 방법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았다. 성전형화된 사람에 비해서 양성적인 사람은 정보처리과정에서 성별구분을 별로 하지 않으며 나아가 어떤 주어진 상황에서 어떠한 행동이 남성 혹은 여성에게 적합한 행동인가에 대해서 아예 의식하지조차 않는다는 것이다. 성도식에 따른 Bem의 이론은 인지과정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며, 성별구분을 하지 않는 양성적인 사람이 성전형화된 사람에 비해서 더욱 발전된 상태라고 보기 보다는 상이한 상태라고 보고 있다.

이 분야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있어온 외국의 경우와는 달리 우리의 성도식의 사용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다. 지금까지 이루어져 온 성고정관념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성역할 고정관념과 남성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윤진, 최정훈, 김영미, 1989), 성역할 고정관념 및 특성이 기혼여성의 취업에 따르는 적응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정진경, 1989), 아동의 성역할 태도변화에 대한 연구(허순희, 정진경, 1987), 한국 대학생의 직업에 대한 성고정관념의 연구(탁진국, 1995) 등이 있다. 특히 이 분야에 대한 인지적 접근의 연구는 아직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권위주의적 사고

권위주의의 연구는 Frankfurt학파에 속하는 Adorno(1950) 등이 실시한 일련의 연구들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들이 개발한 척도 중 하나인 권위주의 성격척도(Authoritarian Personality Scale)는 인습주의(conventionalism), 권위주의적 복종(authoritarian submission), 권위주의적 공격성(authoritarian aggression), 반대성주의(anti-intracception), 미신과 고정관념(superstition and stereotype), 권력과 강인성(power and toughness), 파괴와 냉소주의(destructiveness and cynicism), 투사성(projectivity), 성(sex)의 9개의 하위요인들을 각각 나타내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Adorno가 정의한 권위주의 성격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첫째 자신의 신념에 매우 경직되어 잘 바꾸지 않으려 하며 인지적인 유연성이 결여되어 있고, 둘째 인습적인 가치관을 소유하고 있으며 자신이 허약하다는데 대해 참용성이 없을 뿐더러 언제나 강력해야 마음이 놓이며, 셋째는 타인에 대하여 가혹하고 의심이 많으며 자기보다 높은 지위나 권위에 대해서는 지나칠 정도로 굽신거리고 존경한다. 권위주의적 성격을 측정하는 F척도에서 권위주의적 성격의 점수가 높은 사람은 약소민족이나 소수집단에게 일관성 있게 상당한 정도의 편견을 보인다.

Adorno 등에 따르면 권위주의 성격척도의 점수가 높은 사람들은 처벌과 위협에 의존하는 양육태도를 지닌 지배적인 아버지와 엄격한 어머니 아래서 자라난 사람들이었다. 이러한 사회화의 결과로 이 어린이

들은 불안정하고 부모에게 극히 의존적이며 동시에 부모에 대한 공포와 무의식적인 적의를 갖고 있다. 어린 시절에 경험한 불안정과 의존성은 어른이 되어 권력과 권위를 지닌 위치의 사람들에 대한 복종을 형성하게 되고 더불어 어린시절의 공포와 적의는 어른이 되면 소수집단의 성원이나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에 대한 적의로 변환된다는 것이다.

Adomo 등이 제시한 권위주의 성격의 9개 측면들을 토대로 민경환(1989)은 한국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권위주의 사고와 사회적 편견을 연결짓는 작업을 시도하였다. 그는 권위주의적 사고가 편견에 빠지기 쉬운 독특한 유형이라고 믿고, 척도상의 높은 점수를 얻은 사람들(권위주의 고집단)이 낮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권위주의 저집단)보다 다양한 유형의 소수집단들에 대하여 일관성 있게 더 높은 편견성향을 보일 것이라 가정하여 권위주의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자신이나 상대방을 파악할 때 고유한 개인으로 보다는 고정관념적 집단분류(性, 지역, 계층, 인종 등)의 도식을 사용하는지를 밝히려고 하였다. 권위주의적 사고의 형성기제가 어떠한 권위주의적 사고가 소수집단에 대한 편견을 보이는데는 내집단 중심성과 사람을 고정관념적 집단분류도식을 사용하여 이해하는 인지적 버릇의 두 특성이 주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연구결과, 권위주의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낮은 사람들과 비교하여 소속집단에 대한 우월의식, 즉 내집단 중심성이 높았고, 권위주의 성향이 높은 사람일수록 상대방을 파악할 때 출신도, 성, 종교, 계층 등의 집단 분류도식을 보다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권위주의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인간을 고유한 개인으로 보다는 사회통념적 집단구분에 의한 집단구성원으로서 파악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한국사회의 세 소수집단인 호남인, 여성, 하류계층인에 대한 인지, 감정 및 행동의사의 세 측면을 비교한 결과 흥미로운 차이점을 발견하였는데 세 소수집단에 대한 차별의 근거가 호남인의 경우는 사회성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 하류계층인의 경우는 능력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 그리고 여성의 경우는 성역할에 대한 사회문화적 고정관념들로 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적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현재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지 수행평가를 중심으로 우리 문화에서 경험적으로 재검증해 보는데 그 의의가 있다. 전통적인 가부장제의 특성이 아직도 혼재해 있는 우리 문화의 특성(조혜정, 1986)으로 인하여 기존의 외국의 결과와 다른 결과를 보일 수도 있다고 보아 이를 반복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도식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에 따라 남녀간의 차이를 과장 또는 왜곡할 경향성이 있으며, 편견에 빠지기 쉬운 권위주의적 사고 역시 사람들을 고유한 개인으로 보다는 사회통념적 집단구분에 의해 파악하는 경향성 때문에 남녀의 평가에서 성(性)이라는 집단분류도식을 사용하여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성도식과 권위주의적 사고에 따라 수행평가가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를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평가자의 특성을 다룬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평가자의 성도식의 사용에 따른 차이를 측정된 연구에서 평가자의 성역할 유형간에 수행평가의 차이를 밝히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이 분야의 구체적인 자료가 아직 없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자료를 구하여 이를 외국의 자료와 비교해 보고자 하는데도 그 의의가 있다. 또한 성도식 이외에 도식적 사고의 평가방식으로서 개인의 성격변인으로 많이 다루어진 것이 편견에 대한 심리역동적 접근을 대표하는 권위주의 성격이며, 권위주의와 수행평가에 대해 관련지은 기존의 연구가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도식 사용 유형으로서 성도식과 함께 이를 다루어 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문제를 글의 우수성에 대한 평가로 검증하고자 하였는데, 이 연구를 수행하는 목적과 학문적 필요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평가대상자(글의 저자)의 성별에 따라 그의 수행에 대한 평가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한다.

연구문제 2: 평가자의 도식 사용 유형(성도식, 권위주의)이 수행평가에 영향을 미치는지 밝혀낸다.

연구문제 2-1: 남녀 저자의 수행평가의 차이가 평

가자의 성도식 사용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지 검증한다.

연구문제 2-2: 남녀 저자의 수행평가의 차이가 권위주의적 사고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지 검증한다.

방 법

1. 예비연구

예비연구는 본연구에 필요한 평가자료를 선정하기 위하여 실시된 절차로 이를 통해 평가자료가 되는 논술과 수필 형식의 글을 여성적인 분야와 남성적인 분야로 나누었다.

1) 논술문의 선정

조사대상자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충북대학교에 재학중인 남녀 대학생 40명이었다.

설문지 충북대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학과를 중심으로 각 계열별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 분야의 특성을 잘 알 수 있는 학문분야를 선발하여 최종적으로 수집된 33개의 학문분야에 대하여 각각의 분야가 얼마나 남성적 혹은 여성적인 분야라고 여기는지를 10 점 척도에 답하게 하는 동시에 제시된 각 분야에 현재 중사하고 있는 남녀의 비율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는지를 적게 했다. SAS 프로그램을 사용한 분석결과 남성적 특성이 가장 강한 분야로는 건축공학이, 여성적인 특성이 가장 강한 분야로는 아동학이 각각 선정되었다.

2) 수필의 선정

기존의 연구(Parsons & Bales, 1955; Bakan, 1966; Spence & Helmreich, 1975)들은 남성성과 여성성의 요소들을 밝히기 위해 두가지의 중요한 개념적 접근법에 의존하였다. 일부 연구자들은(Bakan, 1966) 남성성과 여성성은 인간 상호작용의 두 가지 기본적 양식과 일치한다고 제안하였다. 즉 남성성은 행위 주체성(agency)과 일치하고, 여성성은 친교성(communion)과 일치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남성성을 개인의 성취나 독립, 자기주장, 자기보호, 성공 등을 강조하는 것으로 정의하였고 여성성을 접촉, 결합, 독립성 결여, 비계약적 협동 등의 상호관계적 특질로 정의하였다. 또

다른 연구자들은(Parsons & Bales, 1955) 남성성과 여성성을 도구적(instrumental)행동과 표현적(expressive)행동이란 용어로 개념화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도구적 행동은 목표 지향적이며, 목적과 성취에 대한 강조를 반영한다. 표현적 행동에는 지원적이고 감정적인 반응과 타인에 대한 관심과 보살핌에 대한 강조를 반영한다.

본 연구의 설문지에 포함된 수필 형식의 글은 기존의 연구에서 제시한 남성성, 여성성의 정의에 따라 그 특성을 근거로 미리 수집된 여러 관련자료 중에서 대학원생 이상의 판단자 4인이 그 정의에 잘 부합한다고 공동으로 판단한 글로 선정하였다.

2. 본 연구

1) 조사대상자

조사대상자는 총 147명으로 그중 남자가 75명, 여자가 72명 이었다.

2) 연구설계

본 연구에서는 예비연구에서 미리 선정된 학문 분야와 글의 내용을 함께 고려하여 각각의 글들을 여성적인 분야와 남성적인 분야로 분류하였다. 응답자들에게 실시한 설문지의 내용은 글을 읽고 각각에 대하여 평가를 하는 것이었다. 각 응답자가 논술 형식의 글 2개(남성적 분야, 여성적 분야)와 수필 형식의 글 2개(남성적 분야, 여성적 분야)를 읽고 평가하였다. 설문지의 유형에 따라 두 집단(A집단, B집단)으로 나누었는데 A집단은 논술의 저자가 남자 이름으로 되어 있고, 수필의 저자는 여자 이름으로 되어 있는 설문지를 실시하였고 B집단은 논술의 저자가 여자 이름으로 되어 있고, 수필의 저자는 남자 이름으로 되어 있는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3) 설문지

설문지에서 논술문은 자기 전형적인 남자이름과 여자이름인 '송지식'과 '송지혜', '김명식'과 '김명자'를 서로 같은 글의 저자로 사용하였고, 수필은 '최영철'과 '최영미', '유승애'와 '유승찬'을 대비시켜 서로 같은 글의 저자로 사용하였다. 사용된 이름들은 각각 이름의 끝자만을 달리하여 연구자가 작성한 후 대학

원생들의 검증을 거친 후 재료로 사용하였다. 설문지의 각 글마다 저자에 대한 평가(저자의 나이 추정, 저자의 직업 추정)와 글에 대한 평가(글의 전반적인 평가)를 하였다. 평가 전에 저자의 나이나 직업을 추정하게 한 것은 조작점검(manipulation check)의 기능이 있다. 설문지의 후반부에는 도식 사용 유형을 측정하기 위한 성역할 검사(KSRI)와 권위주의 척도가 각각 포함되었다. 설문지를 구성한 각 척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글의 우수성에 대한 전반적 평가 각각의 글의 우수성에 전반적 평가를 '매우 못 쓴 글이다(1점)'에서 '매우 잘 쓴 글이다(10점)'까지 10점 척도상에 답하게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전반적으로 잘 쓰여진 글이라는 평가가 된다.

권위주의 척도 권위주의 척도는 민경환(1989)이 표준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권위주의의 검사는 인습주의, 권위주의적 복종, 권위주의적 공격성, 反 내성주의, 미신성과 고정관념적 사고, 권력과 강인함에 대한 믿음, 파괴주의와 냉소주의, 투사성, 性的 9개 하위요인들로 구성된 35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문항 하나하나에 대하여 찬성의 정도를 5점 척도상(1: 강하게 불찬성, 5: 강하게 찬성)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성역할 검사(KSRI) 성역할 검사는 정진경(1990)이 표준화한 한국성역할검사(KSRI)를 사용하였다. KSRI는 남성성, 여성성, 긍정성을 나타내는 성격특성 문항들로 총 6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문항에 나와 있는 특성들이 자신을 얼마나 잘 표현하는지를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7점)'까지 7점 척도상에 답하게 되어 있다.

채점시 남성성 점수는 남성성 문항 20개의 평균값이고 여성성 점수는 20개의 여성성 문항의 평균값이며, 남성성, 여성성 점수가 각기 독립적으로 계산된다. 전체 응답자의 남성성 점수와 여성성 점수의 중앙치를 구하여 그림1과 같은 유형분류표를 만들어 각 응답자가 속하는 범주를 설정하게 된다.

글의 내용에 대하여 설문지의 글은 크게 논술과 수필 두가지 형식으로 나뉘어지며, 예비연구를 통하

		여성성 점수	
		중앙치 이상	중앙치 이하
남성성 점수	중앙치 이상	양 성 성	남 성 성
	중앙치 이하	여 성 성	미 분 화

그림 1. 중앙치 분리법에 따른 응답자의 성역할 유형분류

여 미리 선정된 학문분야와 글의 내용을 고려하여 최종 선택된 것으로, 각 글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논술 형식의 남성적 특성이 강한 분야로는 건축학이 선정되었는데 글의 내용은 삼풍사건에 대한 건축 전문가의 글이었으며, 여성적 특성이 강한 분야로는 아동학이 선정되었으며 글의 내용은 아동 전문가의 도덕적 영재 교육에 대한 글이었다. 다음 수필로는 젊은이의 강한 패기와 도전의 내용이 담긴 글('젊은이')이 남성적 특성의 글로 선정되었으며, 여성적 특성의 글('밤바')로는 비내리는 여름밤의 정취를 담은 감수성이 짙은 내용의 글이었다.

4) 실시방법

두 유형으로 미리 나는 설문지를 모든 단과대학이 섞인 개론 수업시간에 들어가 실시하였다. 설문지의 앞장에는 응답자들이 글을 이해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라는 지시문이 짧게 소개되어 있다.

결 과

1. 저자에 대한 인식

1) 저자의 연령 추정

각 글의 저자의 나이가 얼마나 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물어본 문항의 결과를 분석한 결과, 모든 분야에서 남자인 경우가 여자인 경우보다 더 나이가 많을 것으로 추정된 것이 드러났다. 특히 글의 주제가 남성적인 것('건축학'과 '젊은이')일 때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그 결과는 표1과 같다.

2) 저자의 직업추정

각 글의 저자가 어떤 직업을 가졌을 것으로 생각하는지를 물어본 문항의 결과를 카이자승 검증한 결과,

표 1. 저자의 성별에 따른 연령추정 평균(표준편차) 및 차이검증 (n=147)

		저 자		F(1,145)
		남자 이름	여자 이름	
논술	건축학	35.69(9.08)	31.93(8.04)	7.07**
	아동학	37.77(9.67)	37.26(9.94)	0.10
수필	젊은이	48.33(8.75)	42.91(11.25)	10.66**
	밤 비	39.66(10.94)	36.80(10.91)	2.52

** p<.01

남성적인 주제의 논술('건축학')에서 응답자들은 저자의 직업이 대학원생과 논설위원일 것이라고 답한 경우가 많았다. 특히 저자의 성별에 따른 차이가 주목할 만 한데, 여자는 대학원생으로 추정한 경우가 반 이상이었고, 교수나 건축가(전문가), 논설위원 같은 전문직으로 보는 경우는 적은 편이다. 그에 비해서 남자는 교수나 건축가 논설위원 같은 전문직으로 추정하는 경우가 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반면, 여성적인 주제의 논술('아동학')에서는 여자인 경우 아동상담전문가로 추정한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X^2=12.54$, $p<.01$). 이를 보면 전통적으로 여성적인 분야에서는 여성전문가가 꽤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드러난다. 그 결과는 표2와 같다.

표 2. 논술에서 저자직업 추정빈도(명)

분야	저자	대학원생	교수	전문가	논설위원	전체
건축학	남자 이름	27	8	11	26	72
	여자 이름	39	4	9	23	75
아동학	남자 이름	24	13	24	11	72
	여자 이름	13	11	46	5	75

다음은 수필 형식의 글에서 글의 저자가 어떤 직업을 가졌을 것으로 생각하는지를 물어본 문항을 분석한 결과이다. 남성적인 주제의 수필('젊은이')에서는 저자가 남자인 경우에 주로 교수, 기업가(기타), 수필작가일 것이라고 답했으며 여자인 경우에는 대학원생일 것이라는 추측이 상대적으로 많았다($X^2=10.59$, $p<.01$). 여기서는 여성보다는 남성을 전문가로 보는 경향이 드러난다. 또한 여성적인 주제의 서정적 수필

('밤비')에서는 남녀 저자 모두 압도적으로 수필작가일 것이라고 답하였다. 그 결과는 표3과 같다.

표 3. 수필에서 저자직업 추정빈도(명)

분야	저자	대학원생	교수	수필작가	기타	전체
젊은이	남자 이름	1	20	31	23	72
	여자 이름	10	16	33	13	75
밤 비	남자 이름	6	1	52	16	72
	여자 이름	9	0	44	19	75

아동학을 제외한 모든 글에서 남자저자의 경우는 전문직일 것으로 보았으며 여자저자인 경우는 대학원생(상대적으로 비전문가)일 것이라는 추측이 상대적으로 많다. 그러나 아동학 분야만은 여성전문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었다.

위의 결과를(저자의 나이와 직업 추정) 보면, 남녀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 응답자들이 저자의 성별에 주의를 기울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조작점검(manipulation check)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남녀 저자의 글에 대한 전반적 평가

각 글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매우 못 쓴 글'에서 '매우 잘 쓴 글'이라는 평가까지 10점 척도로 답하게 한 문항의 분석 결과, 모든 글에 걸쳐서 남녀 저자에 따른 글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3. 평가자의 도식 사용 유형의 영향

1) 성역할 유형별 차이

응답자의 성역할 유형과 저자의 성별에 따른 글에 대한 전반적 평가의 차이를 변량분석한 결과, 남성적 특성이 강한 수필('젊은이')에서 성역할유형의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다. 유의한 차이가 발견된 경우 그 응답의 내용을 보면, 양성적인 유형의 응답자들은 남녀 저자의 글에 대한 평가에 별 차이가 없었으나 남성적인 유형과 여성적인 유형의 응답자들은 상대적으로 남녀 저자별로 평가에 차이를 두었다. 즉

글의 저자가 남자인 경우에 더 잘 쓴 글이라고 평가를 한 것이다. 이중 특히 남성적 유형들이 글의 저자가 남자일 때 매우 높은 점수를 주고, 여자일 때는 매우 낮은 점수를 줌으로써 남녀의 차이를 가장 크게 두었다. 그 결과가 표4와 5에 제시되어 있다.

표 4. 성역할 유형별 저자의 성별에 따른 전반적 평가(점수) (n=147)

	SS	MS	F
성역할 유형(A)	39.64	13.21	3.88**
저자의 성별(B)	10.62	10.62	3.12
A×B	28.65	9.55	2.80**

** p<.01

표 5. 성역할 유형별 저자의 성별에 따른 전반적 평가의 평균 및 표준편차(점수)

성역할 유형	남자 이름	여자 이름
양성적	6.89 (1.99)	6.95 (1.49)
남성적	7.56 (1.31)	5.64 (2.05)
여성적	6.52 (1.91)	5.76 (2.08)
미분화	5.36 (1.97)	5.80 (1.85)

2) 권위주의적 사고에 의한 차이

응답자들의 권위주의의 점수는 54점에서부터 126점의 점수범위를 나타냈다. 이는 기존연구(민경환, 1989)에서 보인 점수범위와 비슷한 정도였다. 전체점수분포에서 1/3에 해당하는 점수를 기준으로 고, 중, 저 세 집단으로 나눈 뒤 중간집단을 제외한 나머지 상위, 하위 두집단을 각각 권위주의의 고집단과 저집단으로 구분하였다.

권위주의의 고저 집단과 저자의 성별에 따른 글에 대한 전반적 평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남성적 특성을 지닌 수필('젊은이')에서 권위주의의 고저 집단의 주 효과와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다. 남성적 특성을 지닌 수필에서는 권위주의의 성격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과 비교하여 남녀 평가에 큰 차이를 두었다. 특히 남자를 여자에 비해 매우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

다. 그 결과는 표6과 7에 제시되어 있다.

표 6. 권위주의의 고저집단별 저자의 성별에 따른 전반적 평가(점수) (n=147)

	SS	MS	F
권위주의의 고저 집단(A)	13.66	13.66	3.67**
저자의 성별(B)	3.82	3.82	1.03
A×B	18.78	18.78	5.04**

** p<.01

표 7. 권위주의의 고저 집단별 저자의 성별에 따른 전반적 평가의 평균 및 표준편차(점수)

	남자 이름	여자 이름
권위주의의 고 집단	7.27 (1.57)	5.90 (1.60)
권위주의의 저 집단	5.52 (2.19)	6.04 (2.24)

논 의

본 연구는 도식의 사용이 정보처리의 객관성에 미치는 영향을 수행평가를 중심으로 평가대상자(저자)의 성별이나 평가자의 도식 사용 유형(성도식, 권위주의적 사고)과 관련지어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구체적인 연구문제와 관련된 결과들을 살펴보기 전에, 우선 글의 저자가 남자 또는 여자인 경우에 저자의 나이와 직업에 대한 추정을 분석한 결과, 응답자들은 모든 분야에서 글의 저자가 남자인 경우에 여자인 경우보다 나이가 더 많을 것으로 보았으며 특히 글의 주제가 남성적인 것일 때('건축학'과 '젊은이'), 남자 저자와 여자 저자의 나이 추정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다음으로 저자의 직업을 추정한 결과를 보면, 글의 저자가 남자인 경우에 교수, 건축가, 기업가와 같은 보다 전문적인 직업을 가졌을 것으로 보았으며 여자 저자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대학원생과 같은 비전문가로 추정하는 경향이 있었다. 종합해 보면 남자는 나이가 지긋한 전문직 종사자일 것으로 보는 경향성과 함께 여자는 상대적으로 젊고 비전문직이 많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아동학과 같은 여성적

인 주제의 글에서는 남녀 저자의 나이 차이가 적었고 여자도 전문가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였다. 이 결과는 응답자가 저자의 성별에 주의를 기울였다는 것을 보여 준 동시에 직업면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더 명예롭고 높게 평가된다는 외국의 결과들과 일치한다.

1. 남녀 저자의 글에 대한 전반적 평가

저자의 성별에 따라 글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달라지는지를 검증한 결과, 남녀 저자에 따른 글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기존의 연구(Swim et al., 1989)에서도 동일한 자료를 평가했던 사람들이 남자가 쓴 것인지 혹은 여자가 쓴 것인지에 따라 같은 자료를 다르게 평가했지만, 평가 대상자(저자)가 남자인지 여자인지에서 오는 응답자들의 평가차이의 크기가 지극히 작았음을 보고한 바 있다. 그러한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가 실제로 우리가 성 고정관념으로부터 벗어났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음을 다음에 제시되는 도식 사용 유형에 대한 분석결과에서 부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2-1. 성도식의 사용이 수행평가에 미치는 영향

평가자의 도식 사용 유형과 관련지는 결과 분석에서는 특정한 도식 사용 유형을 가진 사람들은 아직도 전통적인 성 고정관념을 확연히 표현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우선 성도식의 사용에 따른 차이를 검증한 결과를 보면, 남성적 특성이 강한 수필(‘젊은이’)에서 양성적인 유형의 사람들은 남녀저자에 따른 글에 대한 평가가 차이가 없었던 반면, 남성적인 유형의 사람들은 글의 저자가 남자였을 때, 그 글이 매우 잘 쓴 글이라고 평가하여 남녀저자의 차이를 가장 크게 두었다. 결과적으로 양성적인 사람은 다른 유형의 사람들에 비해 비교적 차별적이지 않으며 남성적인 유형의 사람들이 차별을 가장 많이 일으키는 유형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들은 도식적 사고로 인해 차별적인 경향이 심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내릴 것으로 기대하기가 어렵다.

성도식의 영향을 측정한 외국의 결과들을 보면, 양성적인 유형의 사람들이 여성적이거나 남성적인 유형의 사람들보다 고정관념에 치우치지 않은 공정한 평가를 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남성적인 유형의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확실적인 평가를 한 반면, 양성적인 유형의 사람들은 남자 평가대상자를 더 호의적으로 평가했다는 보고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평가에 대한 성역할 관련성을 측정한 연구들이 아직까지 소수인 점을 감안할 때 결과의 신뢰성에 의심이 가는지 면이 없지 않다는 견해도 있다(Swim et al., 1989). 여기에 비해 본 연구 결과는 양성성에 더 부합하는 결과를 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 하다.

2-2 평가자의 권위주의적 사고가 수행평가에 미치는 영향

다음으로 권위주의적 사고 정도에 따른 평가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남성적 특성이 강한 수필(‘젊은이’)에서 권위주의의 고저 집단별로 전반적인 평가가 남녀 저자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권위주의가 심한 집단이 남녀 저자의 글에 대한 평가에서 더 큰 차이를 보였고 글의 저자가 남자인 경우에 여자인 경우보다 훨씬 글을 잘 썼다고 평가했다. 이 결과는 일반적으로 편견에 빠지기 쉬운 권위주의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인간을 고유한 개인으로 보고 평가하기보다는 고정관념적 분류도식에 의해 파악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결과는 이론이나 기존의 연구결과(민경환, 1989)와도 일치하는 것이며 권위주의적 사고가 집단 구성원에 대한 평가만이 아니라 그들의 수행결과에 대한 평가에서도 공정성, 객관성을 잃도록 만든다는 것을 일면 보여 주고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수행평가에서 권위주의의 영향을 증명함과 동시에 이 분야의 우리자료를 확보했다는 데 그 중요성이 있다. 수행평가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권위주의의 하위요인들을 각각 분석해 본 결과 부분적으로는 유의미했지만, 본 연구에서는 권위주의의 고저 집단을 하위점수로 다시 나누면 피험자 수가 매우 적어졌던 관계로 그 결과를 보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는 추후에 다시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객관적인 공정성을 요하는 수행평가에

대해 개인의 도식 사용 유형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또 이러한 경향성이 현 시점에서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검증해보고 기존의 연구들과 비교 분석하려는 의도에서 실시한 것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사회의 고정관념과 차별 현상의 이해에는 성도식이나 권위주의적 사고와 같은 도식 사용 유형에서의 개인차 변인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유형들의 도식적 사고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연구해 나가야 할 과제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들면, 사회 구성원 중 특히 진보적 가치관을 지녔다고 볼 수 있는 세대인 젊은 대학생 집단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일반인 집단보다 차별 현상이 더 적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사회 전반적인 현상을 반영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설문지를 구성한 자극재료가 논술과 수필 형식의 글에 대한 평가였기 때문에 수행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검증으로는 한계성이 있을 수 있고, 자극재료의 일부에 대해서만 유의미한 결과가 검증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글 이외의 다른 종류의 수행물(예: 회사에서의 직무 수행, 예술작품, 행동 등)에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는지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민경환(1989). 권위주의 성격과 사회적 편견 - 대학생 집단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4, 2, 146-168.
- 윤진 · 최정훈 · 김영미(1989). 성역할 고정관념과 남성의 스트레스와의 관계(I) - 남성 스트레스척도 개발과 관련 변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4, 2, 84-99.
- 정진경(1989). 성역할 고정관념 및 특성이 기혼여성의 취업에 따르는 적응문제에 미치는 영향: 저소득층의 경우.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4, 2, 169-184.
- _____ (1990). 한국성역할검사(KSRI).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5, 1, 82-92.
- 조혜정(1986). 한국의 가부장제의 변형과 극복: 한국 가족의 경우. 한국여성학, 제2집, 한국여성학회.
- 탁진국(1995). 한국대학생의 직업에 대한 성고정관념의 연구. 한국심리학회 연차 학술대회 발표논문.
- 허순희 · 정진경(1987). 아동의 성역할 태도 변화·교사의 교수태도 및 내용이 미치는 영향. 사회심리학연구, 3, 2.
- Adorno, T. W., Frenkel-Brunswick, E., Levinson, D. J., & Sanford, R. N.(1950). *The authoritarian personality*. New York: Harper.
- Ashmore, R. D., & Del Boca, F. K.(1981). Conceptual approaches to stereotypes and stereotyping. In D. L. Hamilton(Ed.), *Cognitive processes in stereotyping and intergroup behavior*.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Bakan, D.(1966). *The duality of human existence*. Chicago: Rand McNally.
- Banks, C.(1976). White preference in blacks: A paradigm in search of a phenomenon. *Psychological Bulletin*: 83, 1179-1186.
- Basow, S. A.(1980). *Sex role stereotype: Traditions and alternatives*, Monterey, CA: Brooks/Cole.
- Bem, S. L.(1974). The measurement of psychological androgyn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2, 155-162.
- Bem, S. L.(1981). Gender schema theory: Cognitive account of sex typing. *Psychological Review*, 88, 354-364.
- Darley, J. M., & Gross, P. H.(1983). A hypothesis-confirming bias in labeling effec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 20-33.
- Deaux, K., & Lewis, L. L.(1983). Assessment of gender stereotypes: Methodology and components. *Psychological Documents*, 13, 25.(Ms. No.2583)
- Fiske, S. T.(1989). *Interdependence and stereotyping*:

- From the laboratory to the Supreme Court (and back)*. Invited address,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Convention, New Orleans.
- Fiske, S. T. & Taylor, S. E.(1991). *Social cognition* (2nd ed.) New York: McGraw-Hill.
- Goldberg, P.(1968). Are women prejudiced against women? *Trans-action*, April, 28-30.
- Hraba, J., & Grant, G.(1980). Black is beautiful: A reexamination of racial preference and identific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6, 398-302.
- Kaplan, A. G., & Sedney, M. A.(1980). *Psychology and Sex Roles: An Androgynous perspective*. Boston: Little, Brown.
- Locksley, A., Borgida, E., Brekke, N., & Hepburn, C. (1980). Sex stereotypes and social judg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 821-831.
- Locksley, A., Hepburn, C., & Oritiz, V.(1982). Social stereotypes and judgement of individuals: An instance of the base rate fallacy.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8, 23-42.
- Lueptow, L. B.(1980). Social change and sex-role change in adolescent orientations toward life, work, and achievement: 1964-1975. *Social Psychology Quarterly*, 43, 48-59.
- Martin, C. L.(1986). A ratio measure of sex stereotyp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489-499.
- Parsons, T., & Bales, R. E.(1955). *Family socialization and interaction process*. Glencoe, III: Free Press.
- Sagar, H. A., & Schofield, J. W.(1980). Racial and behavioral cues in Black and White children's perceptions of ambiguously aggressive ac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 590-598.
- Spence, J. T., Helmreich, R. L., & Stapp, J.(1975). The Personal Attributes Questionnaire: A measure of sex role stereotypes and masculinity-femininity. *JSAS Catalogue of Selected Documents in Psychology*, 4, 127.
- Swim, J., Borgida, E., Maruyama, G., & Myers, D. G.(1989). John McKay versus Joan McKay: Do gender stereotypes bias evaluations? *Psychological Bulletin*, 105, 409-429.
- Ward, C.(1979). Differential evaluation of male and female expertise: Prejudice against women? *British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8, 65-69.
- Ward, C.(1981). Prejudice against women: Who, when, and why? *Sex Roles*, 7, 163-171.

The Effects of Gender Schema and Authoritarianism on Performance Evaluations

Hyun-Ju Choi and Jean-Kyung Chung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Since Goldberg's influential study demonstrated an evaluative bias against women by showing that evaluation of the same article came out lower when attributed to a woman author compared to a man, many studies have adopted the experimental paradigm. The accumulated results are inconsistent, however, and a recent study using meta-analysis concluded that there is little evidence of gender-biased evaluations. The present study has two major purposes. The first is to examine if the western results in gender bias in evaluation is replicated in the Korean culture, and the second is to test the effects of gender schema and authoritarianism in evaluations. One hundred and forty-seven subjects answered a questionnaire which included 4 articles attributed to male or female authors, the Korean Sex Role Inventory, and the authoritarianism scale. Overall, the results did not show any significant gender-bias in evaluations, replicating the results of previous studies. When the results were analyzed by groups differing in schema use, however, it was found that some people are indeed biased against women in their evaluations. For one of the four articles which deals with ambitions of the youths(masculine connotations), masculine sex-typed subjects and highly authoritarian subjects evaluated the article more highly when it was attributed to a man than a woman. Androgynous subjects and non-authoritarian subjects did not show any gender bias. These results suggest that it is yet premature to conclude that gender bias in evaluation does not exist any more. On the whole, it may be fading away gradually, but it is still alive and exerting its influence in a significant part of the population, namely those who use stereotyped schemas.